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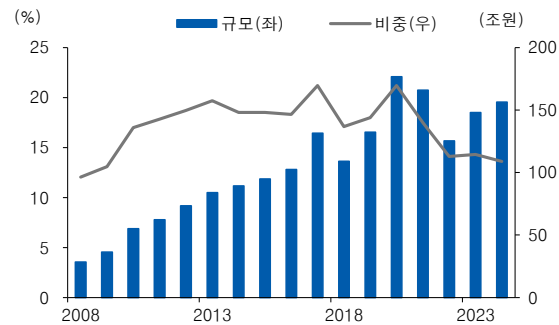


2024년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1. 국내기관투자자의 자산배분

-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2000년대부터 국내주식 투자를 시작하였고, 2010년대부터 해외주식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
- 국민연금은 9월 국내주식의 장기성장형과 책임투자형의 위탁 운용사 선정 공고를 내고, 10월 중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방침.
- 교직원공제회는 2022년부터 해외주식 규모가 국내주식을 넘어섰으며, 작년부터 해외주식 직접운용 시작.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감소 추세이나, 운용 자산 규모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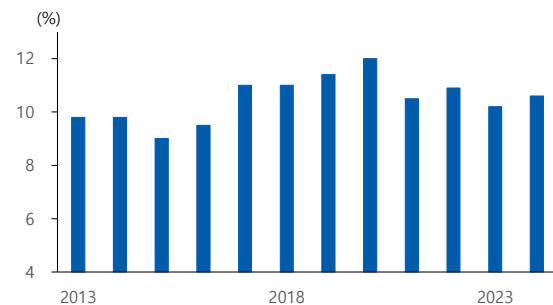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해외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 해외의 기관투자자들은 미국 등 선진국 주식시장의 강세로 양호한 성과를 실현하는 경우가 많음.
- 네덜란드의 ABP는 2024년 들어서 주식 자산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
-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국부펀드의 주식 자산은 2022년이후 꾸준히 증가. 신흥국 주식 비중은 연초 이후 소폭 증가.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신흥국 주식 비중은 연초 이후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국내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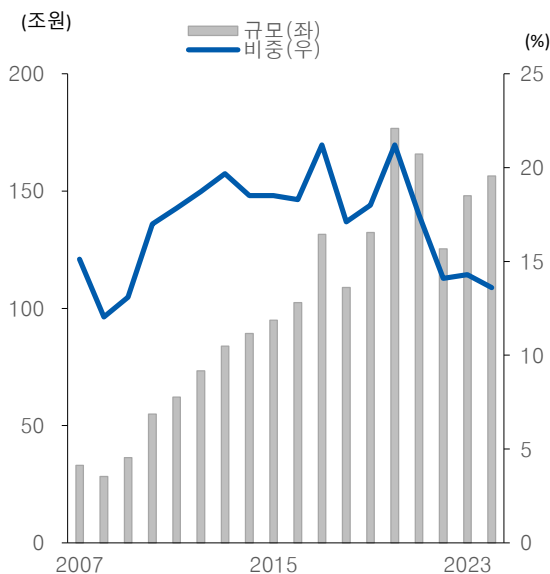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2000년대부터 국내주식 투자를 시작하였고, 2010년대부터 해외주식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국내주식보다는 해외주식에 더 많은 자산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3년 운용자산이 1,000조원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지난 7월 운용 자산은 1,15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156조원, 해외주식 388조원, 국내채권 337조원, 해외채권 82조원, 대체투자 184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9월 국내주식의 장기성장형과 책임투자형의 위탁 운용사 선정 공고를 하였고, 10월 중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각 유형별로 2개사의 운용사를 선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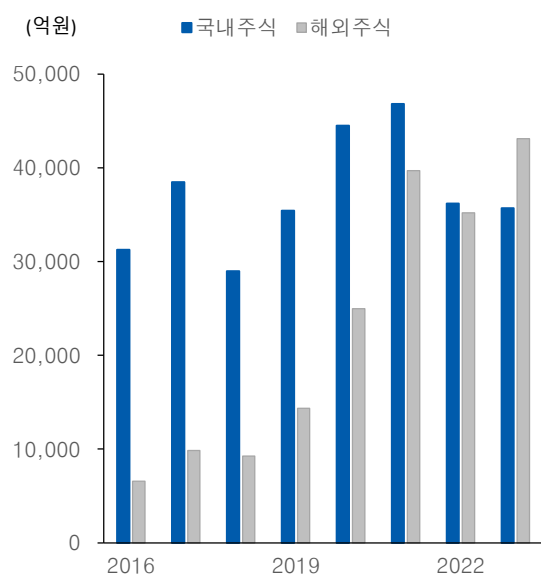
교직원공제회의 2023년말 운용자산은 48.7조원으로 국내주식 3.5조원과 해외주식 4.3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2022년부터 해외주식 규모가 국내주식을 넘어섰으며, 작년부터 해외주식 직접운용을 시작하였다.

[차트1]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감소 추세이나, 운용 자산 규모는 증가.



자료: 국민연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교직원공제회, 2022년부터 해외주식 규모가 국내주식 규모 넘어섬.



자료: 사학연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국내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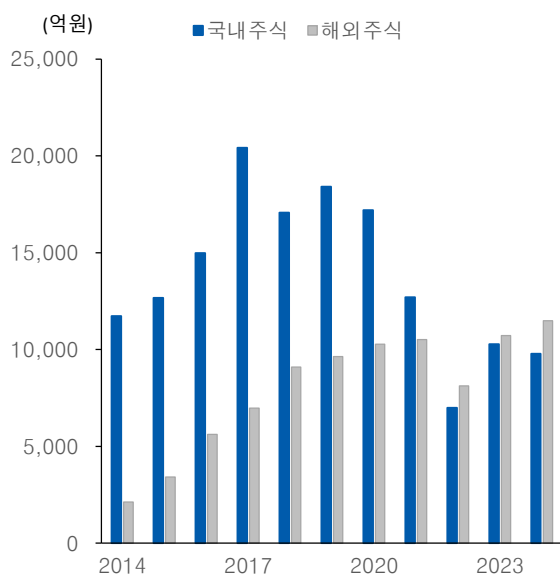
공무원연금은 2022년부터 해외주식 규모가 국내주식의 규모를 넘어섰으며, 올해 6월부터 해외주식 직접 운용을 시작하였다. 국내주식은 2019년 이후 5년만에 배당형 신규 운용사 선정 작업에 나섰다.

배당형은 시장 배당 수익률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개 운용사에 200억원씩 총 400억원을 위탁할 계획이다. 대체투자 분야에서는 해외 연기금과 제휴를 통한 공동투자 방식으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

사학연금은 2021년부터 해외주식 규모가 국내주식 규모를 넘어섰으며, 최근에도 해외주식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외주식 경험이 쌓이면서, 작년부터는 해외운용사를 직접 선정하는 프로세스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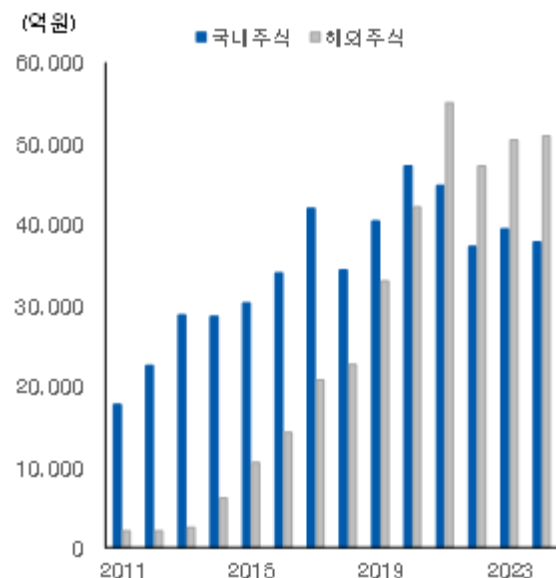
사학연금은 기업금융·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 부서를 자금 운용관리단 직속으로 편입하는 조직개편을 하였다. 사학연금의 작년말 대체투자 비중은 25% 수준인데, 이를 2027년까지 27%로 확대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차트3] 공무원연금, 2022년부터 해외주식 규모가 국내주식 규모 넘어섬.



자료: 공무원연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사학연금, 2021년부터 해외주식 규모가 국내주식 규모 넘어섬.



자료: 사학연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해외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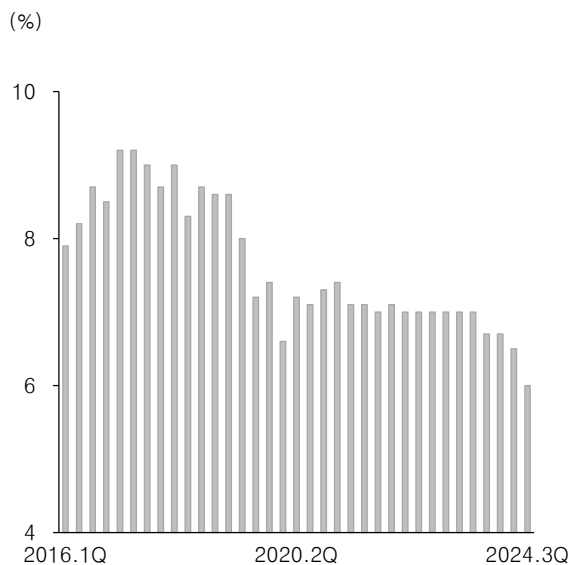
해외의 기관투자자들은 미국 등 선진국 주식시장의 강세로 양호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 자산의 비중이 높아져서 일부 이익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동산 약세로 관련 자산 비중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의 CalPERS는 올해 상반기 Growth 자산의 비중은 1.1% 줄어듦, Income 자산의 비중은 3.0% 늘어났다. 부동산을 포함한 Real Asset은 같은 기간 0.8% 비중이 줄어듦.

네덜란드의 ABP는 2024년 들어서 주식 자산의 비중이 계속 줄어듦 (29.9%→29.5%). 선진국 주식 비중은 늘어난 반면, 신흥국 비중이 0.7%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신흥국 주식 자산 비중을 한 단계 줄이는 과정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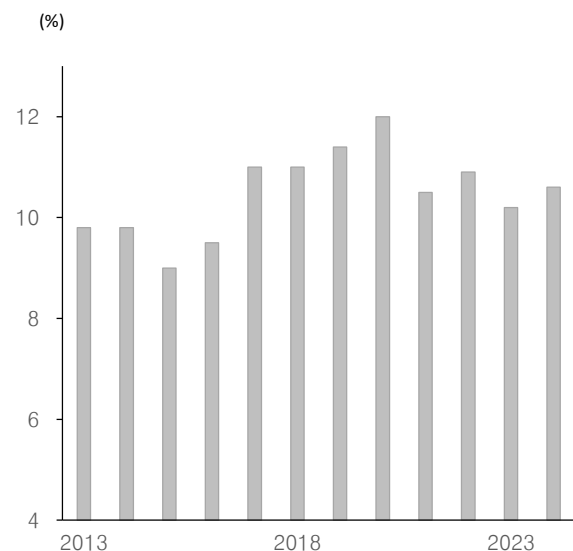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국부펀드의 주식 자산은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상반기 72%를 기록하고 있다. 신흥국주식 비중은 상반기 동안 0.4%가 늘어났다.

[차트5] 네덜란드 ABP의 신흥국 주식투자 비중은 2023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



자료: ABP,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상반기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신흥국 투자비중은 소폭 증가.



자료: NBI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